

<동정자료>

김현미 장관, “철도 안전성 완벽 보완” 특별 지시 소사~원시선 현장 찾아…책임감 갖고 ‘안전에 최우선’ 당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화) 추석 연휴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소사~원시 복선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최근 제기되었던 설계·시공 오류 문제*에 대한 보완시공 현황 및 대책 등을 점검했다.

* ① 본선 환기구 기둥 시공으로 건축한계 저축, ②서해선 개통 시 화물열차 운행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원시정거장의 기둥 저축

○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기준 위반 사항을 발견한 바 있고, 2개월(4월~6월) 간의 전문기관 안전성 검증을 거쳐 7월 중앙기둥 4개소 철거를 완료했다.

□ 김 장관은 이 같은 보완시공 결과를 보고받고 “설계·시공 단계에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 오류가 제기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언론, 국회 등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신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문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안전성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2017. 10. 10.

국토교통부 대변인

< 붙임1 > 소사~원시 복선전철 현장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일시 : '17. 10. 10.(화) 13:10~14:20분(70분)
- 장소 : 소사~원시 복선전철 현장(하중정거장~원시정거장 구간)
- 참석자 : 장관님, 철도국장, 민자철도팀장
철도공단 건설본부장, 수도권본부장
이레일 대표이사, 대우건설 등 시공사 및 감리단
- 목적 : 건축한계 부족문제가 지적된 현장 점검 및 안전의식 강화

□ 점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05~13:10	5' ○ 장관님 현장 도착(하중정거장 일원)	
13:10~13:20	10' ○ 소사~원시 사업개요 등 설명	
13:20~13:35	15' ○ 환기구 #17번으로 이동(모터카 이용)	
13:35~13:50	15' ○ 환기구 #17번 점검	
13:50~14:05	15' ○ 원시정거장으로 이동(모터카 이용)	
14:05~14:20	15' ○ 원시정거장 점검	